검찰 '저축은행 수백억대 부정대출' 연루 8명 기소

은행장·알선 브로커 등 구속
수사 무마 청탁 변호사·기소
편의 제공 검찰 수사관 수사
"금융질서 문란범죄 엄정 대응"

검찰이 제2금융권 241억원 상당 부정대출을 해주고 뒷돈을 받아 저축은행 전 은행장과 대출 브로커,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청탁에 관여한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는 부정대출 실행 대가를 받아 챙긴 모 저축은행 전직 은행장 A(65)씨와 대출 알선 브로커 B(56)씨, 수사 무마 비용으로 7억원을 받아 챙긴 변호사 C씨 등 8명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A씨와 B씨, C씨 등 4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나머지 4명도 불구속 기소한 상태다. 또 해당 사건에 연루된 공범 1명은 캄보디아로 도주해 공범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전 은행장 A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브로커 B씨 등의 부탁을 받고 건설사와 시행사 등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으로 138억원 상당의 부당 대출을 해주고 2019년 5월부터 2022년 11월 사이에는 4건의 부실 대출을 해주고 수수료 명목으로 1억 5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해당 저축은행으로부터 기업들이 부당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고 약 9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간부 출신으로 현직 변호사인 C씨는 은행 부당대출 사건과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A씨 등에게 7억원을 수수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 기소된 D씨에게는 해당 은행에 불법 대출을 부탁하고 뇌물을 주거나 시행사업자로부터 17억원 상당의 호텔 객실을 무상 양도 받기로 하는 등 알선수재 혐의와 법인 자금을 허위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2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조사결과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A씨를 이용해 대출 브로커로 활동하며 2018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8억 8000만원을 챙기고 A 전 은행장에게 대출금의 1% 수준을 수수료 형식으로 전달했다.

이때 A씨는 대출 규정에 어긋나더라도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지시하고 서류를 꾸며 부정 대출 해줬고 은행의 여신승인심사위원회는 형식적으로만 진행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렇게 불법대출을 받은 건설사와 숙박업자는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끝내 은행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손실을 입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수사가 시작되자 A씨와 B씨는 법조 브로커들을 통해 검찰 간부 출신인 현직 변호사 C씨를 소개받고 2차례에 걸쳐 수사 편의 제공과 사건 무마 명목으로 뇌물 7억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광주지검은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부정 대출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 계좌추적, 압수수색 등을 통해 조직적인 범행을 밝혀냈으며 검찰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현직 변호사 등 법조 비리도 규명했다.

현재 A씨와 B씨, C씨 등에 대한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진행되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04호 법정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C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C변호사 측은 "경제적 이유로 범행했다"며 기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해외 도피 이후 지명 수배 중인 법조 비리 연루자 신병 확보에 힘쓰는 한편 수사 편의 제공 또는 협조 의혹이 있는 검찰 수사관에 대한 압수수색 자료 등을 면밀히 살피며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피고인들의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범죄 유인을 원천 차단하는 등 이같은 대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서민과 중소기업의 피해를 유발하는 금융질서 문란 범죄, 법조비리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전남 강풍피해 잇따라… "안전사고 유의해야"

피해신고 24건 접수…조치 완료
기상청 "주말 비바람…주의당부"

광주·전남에 강한 눈·비바람이 몰아친 지난 27일 지역 곳곳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다.

28일 광주·전남소방에 따르면 강풍특보가 내려진 지난 27일 광주지역에서 11건, 전남지역에서 13건의 관련 피해신고가 접수됐다.

27일 오후 1시56분께 나주 다도면 암정리의 한 야산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나무가 쓰러져 산길을 막고 있는 것을 확인했고, 주민 피해와 불편을 우려해 즉시 원상복구 조치했다.

같은 날 오후 5시10분께 광주 서구 쌍촌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도 간판이 심하게 흔들려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소방당국은 안전조치를 완료했다.

이날 광주·전남 전역에 늦은 오후께 내려진 강풍특보는 28일 오전 10시께 내륙을 중심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해제됐다.

다행히 악천후로 인한 인명피해와 교통사고 등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번 주말에도 광주·전남지역에 강한 눈·비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안전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토요일인 30일 새벽까지 광주·전남지역에는 비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남동부내륙에는 29일과 30일 양일간 1~3㎝의 눈이 예보됐고, 기온이 높은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는 5㎜가량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다.

30일까지 광주·전남의 최저기온은 0~8도, 최고기온은 8~1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 보고 있다. 찬공기의 남하로 기압경도가 강해짐에 따라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어, 체감온도는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 서해안을 중심으로 내려진 풍랑특보는 29일까지 이어져 순간풍속 초속 20 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일요일인 1일에는 기온이 일시적으로 올라 최저기온 2~8도, 최고기온 13~16도로 평년보다 2~3도 높은 수준을 보이겠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비나 눈이 내린 지역에 밤사이 기온이 떨어지면서 빙판길과 도로살얼음이 나타날 수 있어 출퇴근 시간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윤준명 기자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 관람

제5기 전남일보 소울푸드 아카데미 회원들이 28일 제15회 광주비엔날레 전시관에서 작품을 살펴보고 있다.

나건호 기자

광주 서구 벽진동 천변에 심어진 수령 300년 된 보호수 왕버들나무가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을 통해 생육환경이 크게 개선됐다. 왼쪽부터 외과수술 전 나무, 외과수술 작업 모습, 외과수술이 마무리된 나무.

광주나무병원 제공

'KIA 페스타' 무료입장권 고가 암표거래 '눈살'

중고거래앱서 5만~10만원 거래

한국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12번째 통합우승을 기념하는 'V12 타이거즈 페스타'를 개최하는 가운데, 선착순으로 배부된 무료입장권이 터무니없는 고가에 거래되는 정황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28일 한 중고거래앱에 접속해 '타이거즈 팬페스타'라는 검색어를 입력하자,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이 줄지어 게재돼 있었다. 티켓의 가격은 장당 5만원에서 시작돼 10만원을 넘는 고가에도 거래됐다.

해당 티켓은 지난 26일 오전 11시 인터넷 티켓 예매 사이트를 통해 선착순 5000명에게 배부된 무료 티켓으로 올시즌 타이거즈의 인기를 방증하듯 티켓은 예매 시작과 함께 금세 동났다. 행사에 참여하고 싶지만 입장권을 구하지 못한 야구팬들의 심리를 이용해 고가의 '암표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권을 차익없이 양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상에서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암표거래에 해당해 법적 처벌대상이다.

지난 10월 2024 신한SOL뱅크 KBO리그 한국시리즈 1차전 당시 광주경찰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입구에서 3만5000원 상당의 입장권을 15만원의 고가에 판매한 40대를 경범죄처벌법 위반행위로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윤준명 기자

광주 벽진동 왕버들나무 자연친화적 외과수술로 '새 단장'

수령 300년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
썩은 부위 제거 살균·살충·방부작업
영양제·비료 투입해 수세 약화 방지

광주 서구 벽진동의 수령 300년 된 보호수 왕버들나무가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다.

광주나무병원(원장 김중태)은 최근 이 나무의 생장에 부담을 적게 주는 외과수술 기법을 활용해 생육환경을 크게 개선했다고 28일 밝혔다.

벽진동 천변에 심어진 왕버들은 높이 13m, 나무둘레 7.6m의 노거수로 1982년 12월 보호수로 지정됐다. 지정될 당시 수령은 250년으로 추정됐다.

이 보호수는 10여년 전 내부에 상처가 심해 우레탄폼 등으로 충진하는 외과수술을 받았으나 매트처리한 부위가 갈라지면서 수분이 안쪽으로 흘러들어 나무를 썩게 하는 백색부후균이 심하게 발생했다.

이에 광주나무병원은 지난 15일부터 2주간에 걸쳐 호남지역 나무의사들의 도움을 받아 썩은 부위를 완전 제거한 뒤 살균·살충·방부 작업과 천연재료 방수처리, 자연건조 등 자연친화적 외과수술을 실시했다. 또 바람과 햇빛이 잘 통하도록 수관을 정소하고 외과수술로 인한 수세 약화를 방지하기 위해 줄기에 수간주사(영양제)를 놓고 토양에 막대비료를 투입했다. 이와 함께 가지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마다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최대한 보호수 원형을 유지하도록 했다.

김중태 광주나무병원 원장은 "광주 서구와 호남지역 나무의사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으로 고사 위기에 놓인 왕버들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게 돼 보람있게 생각한다"며 "보호수와 노거수의 경우 한 자리에서만 수백년을 살아와 줄기에 생채기가 많은만큼 주위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진일보
@jnilbo
Kakao Talk : 진일보
E-Mail : jebo@jnilbo.com